



김 용 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우리 사회의 여건 전망과 사회정책적 대응을 위한 국책과제

2007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경해 년으로써 육백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띠' 해 라고들 합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 아이 들이 많이 태어나는 출산 붐이 일어나기를 희망 합니다. 바람직한 결혼과 출산 문화, 양성평 등의 가족문화가 확산되어 금년의 출산 붐이 앞 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현 정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써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동시에 올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고 미래 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연구에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면, 저출산의 지속가능 성은 여전히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요 인이 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의 진행은 성장잠

재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부양부담을 가 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 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심화는 중산층을 축소시 킴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 을 유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은 국민통합을 해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 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추락은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줄임으로써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 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4%대의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 한미 FTA에 이어 EU와의 FTA 협상, 중 국과 아세안 국가 등 FTA 협상 대상국들이 지 속적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바야흐로 개방화 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거수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개방 으로 얻게 되는 국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방화로 흥하는 산업과 몰락하 는 산업,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과 미숙련 인 력간의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심각 한 양극화의 갈등속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 안정해지고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2007년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사회양극화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양극화는 빈곤을 대물 립하고 사회계층 이동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입 니다.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계층이 자 립할 기반과 기회를 부여하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즉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투자를 통해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경쟁 력을 높িয়ে 줌으로써 다시 성장과 국부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2007 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사업의 방향 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미 FTA 등 개방화 에 대처하는 연구, 특히 한미간 의약품정책의 협상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 니다. 또한 개방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사회양극 화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대책을 비롯하여 타 국책연구기관들 과 협동하여 경제·사회양극화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비적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써 성장잠재력 확충

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부문의 획기 적인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하는, 다시말해서 사회보장과 고용 두 마리 토 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투자 전략에 연구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자 하며, 건강증진사업의 과학성을 제고 하기 위해 근거(evidence)에 기반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소홀하였던 국가적인 영양관리의 발전전략을 새로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 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보편적인 보 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소득보장시스템과 건강보장시스템의 구축방안도 마련하고자 합 니다. 또한 지역간 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를 진단하 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출산의 늪을 극복하여 출산율을 회복하 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임을 강 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문화를 조 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 책연구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모든 연구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